

#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을 2025년 한해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욱 귀한 공동체의 교회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지는 '매일성경'(월-금)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4. 2025년 제직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에 큰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부/조창 최명희 김정신    교육부/조은영 한미숙  
 교제부/박송화 한정임 박래석    전도부/한규철 서민정 한광기
5. 후보 내지에 함께 드린 전도 대상자 걱정 카드를 이번 2월 마지막 주일 23일까지 전도부장 한규철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월 예배 위원

안 내	조창	김정신		
기 도	김대회(2)	조은영(9)	박래석(16)	한정임(23)

##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수요 제자 양육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7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생명샘 장로교회 홈 페이지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5년 을 한 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길 축원합니다.

저희 생명샘 장로교회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목마른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말씀에 있음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 배 2025년 2월 2일 오후 1시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유의 주재 / 찬송가 32(신) 48(구)

\*성시 교독 / 시편 5편 (교독문 4번)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죄짐 맡은 우리 구주 / 찬송가 369(신) 487(구)

기도 / 김대희 전도사

성경 봉독 / 누가복음 14장 25-34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참된 제자도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찬송가 305(신) 405(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 오늘 말씀 요약

1. 주님은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2.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 식구를 미워하라 하시며,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참된 주님의 제자라 말씀하십니다.
3. 구원은 참된 제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성공이요 승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때 이루어집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난주 설교 요약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히 13:1-6

1. 주님께서는 다섯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형제 사랑을 계속할 것을 명하시며 사랑을 주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둘째로, 친하게 지내지 않은 사람들도 기회 될 때마다 잘 섬길 것을 명하십니다.

셋째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외되거나 억압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넷째로, 성적인 악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잘 관리하며 잘 사용하라는 주님의 명입니다.

2. 상당히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해 주는 귀한 말씀이지요.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명령하고 계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말씀하십니다.

3. 이렇게 살아 낼 때, 손해를 보고, 더욱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지 모릅니다.

4.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알팍한 기도와는 달리,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확실하게 체험하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